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156만 km ²	G D P	55억 달러 (2010년)
인구	275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2,023달러 (2010년)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의원집정부제)	통화단위	Tugrik (투그릭)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357 (2010년 평균)

-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
- ☐ 인구의 95%가 몽골족으로 주로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고, 그 밖에 샤머니즘, 이슬람교, 회교 등도 신봉함.
- ☐ 1921년에 구소련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독립하였고 1924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구소련 붕괴 이후, 1992년부터 민주공화제 하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 동(매장량 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1,200만 톤, 3위), 석탄(1,750억 톤, 4위), 우라늄(6만 3,000톤, 14위)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광물 수출이 경제 성장 견인

-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호황으로 인한 광물 수요 증가가 높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09년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
 - 2009년에는 금을 제외한 주요 광물과 캐시미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투자가 급감하여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주요 광물 가격 상승 및 광업부문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힘입어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중국의 석탄 등 광물자원 수요 급증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견인
- 2011년에도 몽골경제는 광산개발에 따른 건설 및 서비스업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여 10.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로 촉발된 은행 부실화 및 신용경색의 완화와 흑만으로 급감했던 농산물 수확량의 회복도 높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제 성 장 륜	10.2	8.9	-1.3	6.1	10.3
재 정 수 지 / G D P	2.1	-3.6	-5.1	1.3	-4.2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9.1	25.1	6.3	10.2	16.4

자료: IMF, EIU.

□ 광산 개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으로 변동성 지속

- 2009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비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 GDP 대비 5.1%의 적자를 기록함.

- 법인세와 초과이익세 수입은 각각 2008년 대비 38%, 80% 감소함.

- 2010년 몽골정부는 GDP의 43.3%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기관 임금과 사회보장비 등에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산 개발로 인한 세금 수입과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1.3%의 흑자를 기록함.

-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지출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광물가격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1년 재정수지는 4.2%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0년부터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Law)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진행하는 한편, 2012년부터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광산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재정수지는 흑자세로 돌아설 전망

□ 확장적 재정정책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에 10.2%를 기록함.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은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식료품과 원유 가격이 급등한 데 기인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상품가격 상승,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더욱 상승하여 16.4%를 기록할 전망

- 몽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 등 통화억제 정책 시행

- 중앙은행은 2010년 4월부터 11.0%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세차례에 걸쳐 1.25%p 인상하여 12.25%로 조정

□ 흑한과 폭설 피해로 인한 실업률 상승

- 정부 통계에 의한 실업률은 2009년 3.5%로 발표되었으나, 세계은행은 2010년 25~28%로 추산하고 있는 등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
-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에 흑한으로 전 국토의 80%가 눈으로 뒤덮혀 수백만 두의 가축이 동사함. 이로 인해 유목민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2010년말까지 약 2만 명이 수도 울란바타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높은 대외 의존도

- 농업활성화, 제조업 기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함.
- 특히 캐시미어 등의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2009년 GDP의 5.9%에 불과함. 제조업부문 취약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됨.
- 이 외에도 광활한 국토에 인구가 적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있음.

□ 광물 위주의 수출품으로 외부경기 변동에 민감

- 2010년 기준 광물이 총수출의 80.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의 다양화 미흡으로, 외부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음. 중국은 몽골 수출의 82.5%, 수입의 45.1%를 차지해 제 1 수출국인 동시에 제 1 수입국임.
- 열악한 기후여건, 소규모 영농, 경쟁력있는 가공업체 부재 등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아 곡물 수요량의 약 1/3만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열악한 수송 인프라

- 광활한 국토, 적은 인구, 광업과 목축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철도, 도로 등 수송과 관련한 물류 여건이 열악함. 이에 따라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등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수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남부고비지역과 동부 지역은 물론 전략광산들에 대한 철도를 연결할 계획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인투자자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이밖에도 몽골-중국-러시아, 몽골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물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장 잠재력

□ 매장량 기준 동 세계 2위, 석탄 세계 4위의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몽골은 동(매장량 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1,200만 톤, 3위), 석탄(1,750억 톤, 4위), 우라늄(6만 3,000톤, 14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내륙국인데다 재원이 부족하여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용이

- 몽골 광물 자원의 최대 수요자이자 투자자인 중국, 러시아와 인접하여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로 광물 자원 개발 활발

- 2009년 10월 전략 광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자원개발과 수송인프라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됨.

- 캐나다 아이반호사(Ivanhoe- Mines Ltd.)와의 오유톨고이(Oyu Tolgoi) 동·금 광산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빠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주된 수출품인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는 1개 자유경제지역과 2개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지향형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 자유경제지역: 자민우드(Zamiin-Uud), 자유무역지역: 알탄불락(Altanbulag), 차가누르(TsagaaNuur)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광물, 캐시미어 등의 상품을 수출하고, 연료·기계설비·전자부품·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임.
- 경상수지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상품수지 적자 외에도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로 인한 과실송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172	-690	-342	-887	-1,302
경 상 수 지 / GDP	4.2	-13.2	-7.7	-16.1	-19.0
상 품 수 지	-52	-627	-189	-180	-1,049
수 출	1,951	2,529	1,885	2,909	3,825
수 입	2,003	3,156	2,074	3,089	4,874
외 환 보 유 액	802	561	1,294	2,197	2,244
총 외 채 잔 액	1,699	1,643	2,096	2,732	3,884
총외채잔액/GDP	41.4	31.4	47.0	49.5	56.6
D S R	4.2	2.8	3.7	4.4	2.0

자료: IFS, EIU.

□ 광산개발 지분보유 한도 확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71.4% 증가한 약 16억 9,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26.1% 감소하였으나,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함에 따라 2010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함.
- * 2010년 말 기준 국가별로는 중국(55.7%)이 최대 투자국이고 이어 캐나다(8.3%), 한국(6.2%), 일본(4.2%), 영국(3.4%), 러시아(3.3%), 미국(3.3%)순이며, 업종별로는 광업부문이 전체의 56.3%를 차지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008년 6억 8,300만 달러 → 2009년 4억 3,700만 달러 → 2010년 9억 5,000만 달러 (IMF 추정치)

□ 수출 증가로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 보유액 증대

- 세계경기과 국내경제 회복,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환율 상승압력이 완화되어 2010년 환율은 평균적으로 미달러 대비 1,357투그릭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09년중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로 미 달러 대비 투그릭화 환율이 2008년 말 1,166투그릭에서 2009년 3월 1,591투그릭까지 치솟음.
-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2010년 말에는 투그릭화 환율이 전년 대비14.8% 하락하며 안정
- 2011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 등으로 미 달러 대비 환율이 1,228투그릭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원조자금 유입에 따른 총외채잔액 증가세 지속

- 재정수입 기반 취약으로 2010년에는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49.5%에 달하는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원조자금에 의해 재정이 유지되는 상황
 - 총외채는 대부분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 세계은행 등은 몽골정부의 rudd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광물가격 폭락으로 몽골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자 2009년 4월 IMF가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agreement)으로 2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10년 10월까지 최종 집행함
 - 2011년 6월에는 세계은행이 광산 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안정된 정치상황 지속

- 2009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의 엘베그도르지(T. Elbegdorj) 후보가 당선됨. 우려했던 폭력사태 없이 인민혁명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2009년 10월에는 몽골인민혁명당 산자 바야르(Sanja Bayar)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수흐바타르 바트볼드(Sukhbaatar Batbold) 전 외무부장관이 총리로 취임.
 - 예상치 못한 총리의 교체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현재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유목민의 도시 유입, 실업증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 잠재

- 유목민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빈곤층 증가, 실업 증대 등의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 특히, 한파와 혹한으로 대부분의 유목민이 생계수단을 상실하였고, 이 가운데 약 2만 명이 수도인 울란바타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투자 증가에 대한 반발 존재

- 광산 분야로의 외국자본 유입을 반발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2011년 4월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시위는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 등과 연대하는 양상을 보임.

3. 국제관계

□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구사

- 인접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원조국인 일본, 미국 등을 활용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몽골은 광물 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철도 현대화 사업권과 우라늄, 석탄 자원 개발권을 주는 대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대외채무가 2011년 38억 8,4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등 GDP 대비 56.6%로 채무 규모가 큼.
- 그러나 단기 외채잔액이 총외채의 3.4%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때문에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 2.0% 수준이어서 외채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 평가

□ OECD,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

- 몽골은 2009년 IMF와 원조국의 지원으로 인해 물가상승 둔화, 환율 안정,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됨.
- 이에 S&P, Moody's 및 Fitch는 2009년말 등급조정 없이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하였고, 2010년 들어서 Fitch가 한차례 더 신용등급을 한단계 상향 조정
- 2011년에 OECD는 몽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확충, 주요 수출광물의 가격 회복, 환율 안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1.12)	D1 (2011. 4.)
OECD	5등급 (2011. 3.)	6등급 (2010. 4.)
S&P	BB- (2010.11.)	BB- (2009.11.)
Moody's	B1 (2009.10.)	B1 (2009. 6.)
Fitch	B+ (2010.11.)	B (2009.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3월 26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4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1991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93년), 세관분야협력협정(1993년),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년), 관광협력협정(2004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협정(2006년)
- 대 몽골 상품수지 흑자 지속
- 2010년 한·몽골 교역규모는 2억 3,92만 달러이며 대 몽골 수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억 9,200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85.7% 증가한 3,9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식료품, 건설 및 광산 기계 등이고, 수입품은 금속, 비금속광물, 의류와 가죽 등임.

<표 4> 한·몽골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몽골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38,231	166,887	191,631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기호식품
수 입	31,150	21,479	38,839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농산물
합 계	269,381	188,366	230,470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몽골 해외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몽골 해외직접투자는 2,392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0.1% 수준임.
- 2005년부터 자원개발, 철도 및 도시 건설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대 몽골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함.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광물자원 가격하락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56.4% 급감함.
- 2010년에도 투자는 전년 대비 6.4% 감소를 보였으나, 세계경기 회복, 몽골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감소폭이 줄어들었음.

□ 광업 중심의 투자가 주류

- 우리나라의 대 몽골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광업이 총투자금액의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매·소매업(18.7%), 정보서비스업(14.1%), 건설업(12.0%) 등의 순임.
- 특히, 세계 최대규모의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유연탄 광산개발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가 2011년 9월 백지화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컨소시엄의 재입찰 참여 기대
- 한편, 투자규모별로는 2005년까지 중소기업과 개인 위주의 투자가 93.6%로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자원개발, 통신, 관광 분야 등으로 대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VI. 종합 의견

- 금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표가 악화되기는 하지만, 2010년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점과 광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로 향후 수출물량이 증가함으로써 대외변수에 대한 충격이 예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몽골은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 광물 자원의 수요 증가, 광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0년 6.1%에 이어 2011년에도 10.3%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09년 5월에 사상 최초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동년 10월 갑작스럽게 총리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채무 규모는 크지만 대부분이 IMF 등의 장기 양허성 차관이라는 점에서 외채상환불능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1년에 OECD는 경제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따라 몽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함.

조사역 강 수 연 (☎02-3779-5716)

E-mail: sykang@koreaexim.go.kr